

19 세기 후반 일본의 감염병 대책과 개항장

이치카와 토모오(市川 智生, 오키나와국제대학)

【발표요지】

1859 년 일본은 대외무역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거점은 통상조약에서 지정된 나가사키(長崎), 하코다테(函館), 요코하마(横浜), 고베(神戸), 니가타(新潟) 등의 개항장이었다. 이곳들은 상업 및 물류의 거점이며 해외로부터 급성 감염병이 유입, 확산되는 장소이기도 했다. 당시 일본에서 만연했던 감염병 중 해외로부터 유래한 것은 1870 년대부터 80 년대까지의 아시아 콜레라, 1900 년 전후의 선페스트였다.

개항장에서의 감염병 대책은 선박으로부터의 감염을 막기 위한 해항 검역이 섬나라에서의 물가작전(水際作戦)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데, 엄격한 실시가 물류를 정체시킨다는 모순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당시 조약 틀에서 외국 선적의 선박에 일본의 행정규칙인 검역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웠다. 실제로 일본측 의료 기술의 미숙함과 자유 무역의 저해를 걱정한 영국 공사의 반대로 검역이 중단된 경우도 있었다.

한편 개항장 시가지에서의 방역은 국내 각지로의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한 이동 제한, 격리, 소독 등이 상정되었지만 일본 지방 행정과 외국인 거류지의 이중 행정이 걸림돌이 되었다. 또한 개항 당초 감염병 대책을 맡을 수 있었던 것은 거류지의 영사관에 근무하는 의사와 군의 뿐이었다. 그들은 거류지 사회의 이해를 대변하여 일본인 사회를 포함한 개항장의 방역 행정에 간섭했다.

이상의 특징을 가진 개항장에서의 방역은, 일본측에서 감염병 대책을 맡을 만한 인력이 양성되고, 또 법적으로는 1899 년에 새로운 조약이 시행되면서 달라졌다고 생각된다.

【약력】

이치카와 토모오 (市川 智生/ICHIKAWA Tomoo)

1976 년생. 요코하마국립대학대학원 국제사회과학연구과 수료(학술 박사). 상해교통대학역사계, 나가사키대학 열대의학연구소를 거쳐 현재 오키나와국제대학 총합문화학부 준교수. 전공은 일본근대사, 의료사회사. 발표한 논저로는 「近代日本の開港場における伝染病流行と外国人居留地: 1879 年「神奈川県地方衛生会」によるコレラ対策」(『史学雑誌』 제 117 집 제 6 호, 2008 년), 「明治初期の伝染病流行と居留地行政——1870・71 年横浜の天然痘対策」(『日本歴史』 제 762 호, 2011 년), 永島剛・市川智生・飯島渉編『衛生と近代: ペスト流行にみる東アジアの統治・医療・社会』(法政大学出版局, 2017 년) 등이 있다.